2019년 4차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_결과

일 시	2019년 9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장 소	공동육아법인 회의실		
주 최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석	인원: 13명 (참석 7명, 위임 3 명)	참석	위임
	박영열 (피노키오. 개인. 운영위원장)	○	
	이경란 (올리브, 사무총장)	○	
	배현숙 (지화자, 개인)		
	정인철 (하트, 개인)		
	박영혜 (모자. 전체교사회 대표)	○	
	이해원 (달래. 어린이집교사회 부대표)		○
	이태경 (강아지풀, 기관회원 대표)	○	
	박선영 (아이. 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 의장)	○	
	김성훈 (놀자. 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 부의장)	○	
	김양희 (개나리. 초등방과후교사회 부대표)		○
	임미심 (옹달샘, 지역공동체학교교사회 대표)		○
	김희정 (달콤. 조합대표자회의-초등방과후 의장)	○	
	이성윤 (퍼령너굴. 조합대표자회의-초등방과후 부의장)		
	간사 : 조윤지 (아침, 조직부장)	○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육아 조직 운영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의 2. 기타 - 차기회의 확인. 		
보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9년 7월-8월 활동보고 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9년 7월-8월 회계보고 3. 운영위원회 구성원 보고(단위별, 개별 공유) 		

■ 2019년 9월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1. 보고안건.

1. 7, 8월 활동보고/ 회계보고

- ❖ 이경란 사무총장이 문서를 통해 설명하였다.

2. 주요보고사항 중 논의

1) 보육노동자 한마당 부모발언 관련

- ❖ 부모발언은 깨꿈발어린이집에서 할 수도 있다. 일정여유가 있으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2. 논의안건. 공동육아 조직 운영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의

- 8월 워크숍 내용을 기반으로 조직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

- ❖ 변화가 잦은 조합운영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관리가 안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자의적으로 삭제되지 않는)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문서의 샘플 양식/ 인적 리소스/ 체계를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 입문자를 위한 교육내용 매뉴얼 등
- ❖ 통합된 자료실 구축이 필요: 법인홈페이지, 공사협 카페, 운영진별 밴드들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필요한 순간에 찾을 수 있는 맵(map)이 필요.
- ❖ 체계를 활용: 조합내에서 전수할 내용, 지역네트워크(지역 이사장모임, 지역교육이사모임 등)를 통해 전수할 내용, 법인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
- ❖ 자료집 구성: 있는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실제 대상을 고려한 내용으로 재정리

3. 기타

- ❖ 10월 회의는 10월 14일(월) 진행

■ 2019년 7월-8월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별첨 참고)

■ 주요 보고.

1) 2019 공동육아운영지원 공모사업

- 상반기 진행 상황

- 컨설팅사업

기관	내용			일정	내용	담당	비고
대전유성 공동육아 조합 친구랑어 린이집	공동육아조합의 역량강화와 비전 세우기			6월 29일(토)	조합원워크숍 (공동육아 이해/ 사협 이해)	이 송 지 , 김미애	완료
				7월 13일(토)	조합원 교육 간담회	김 미 애 , 이송지	
	지원금	자부담	총사업비	7월 18일(목)	교사회 간담회	김미애	
	120만원	12만원	132만원				

기관	내용			일정	내용	담당	비고
대구공동육아사 회적협동조합	초등관련 사업개발			8월 16일(금)	이사진 사전미팅	김미영	진행 중
사이좋은해바라 기방과후	지원금	자부담	총사업비	8월 30일(금)	1차 컨설팅	김미영	
	100만원	10만원	110만원	9월 예정			

- 회복적서클지원사업

기관	내용			일정	내용	담당	비고
원주공동육아 조합	회복적서클 강의			7월 6일(토)	워크숍/ 이사진간담회	박진희	진 행 중
소꿉마당어린 이집	지원금	자부담	총사업비	10월19일(토)	워크숍	박진희	
	60만원	10만원	70만원				

- 하반기 공모사업 8월 22일 공지 후 9월 4일까지 접수된 3곳에 대해 사업 수행 예정. (컨설팅 - 강릉산들바람조합/ 회복적서클- 광주햇살가득어깨동무, 은평 소리나는) 그 외 1곳 추가 가능성 있음.

2) 교사회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사례발표 공모전 결과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특성과 장점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 작업 지원

	주제	신청기관(신청자)명
1	강동꿈나무 아이들의 놀이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2	공동육아 초등방과후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놀이	봉제산초등방과후
3	자유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협력적 교사회의 의미 찾기(실내놀이를 중심으로)	경기동부지역교사회
4	공동육아 7세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놀이문화	재미난어린이집
5	도심 아파트밀집지역에서의 공동육아나들이와 자유놀이	푸른숲어린이집
6	해와달의 자유놀이 속 교사 협력	해와달어린이집
7	자유놀이 '다큐 제작'	최현정(성미어린이집 부모)

별첨> 공동육아 교사회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놀이면서 자라고 살면서 자라는 아이들’

- **일 정** : 2020년 1월 18일(토) 10:00 ~ 17:00 (예정)
 - **장 소** : 미정
 - **주 제** :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 자유롭게 놀이하는 아이들
 - **대 상** : 공동육아 교사·부모 회원 및 관련 기관, 단체, 교사 등 (약 550명)
 - **사 회** : 신순혜(기린)
 - **내 용** : 자유놀이 안에서 아이들의 자발성과 몰입을 통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안의 교사와 부모역할과 성장
 - **기획의도** : ‘아이들의 자유놀이’가 공동육아뿐 아니라 최근 보·교육방향의 흐름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공동육아 교사회 20주년을 맞아 ‘자유놀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 공동육아의 ‘놀이를 통해 주체적으로 자라는 아이들’과 그것을 지원하는 교사,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안으로는 교사들의 힘을 확인하고, 밖으로는 공동육아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
- > 교사회에서 다년간 ‘한 터전 한 교육’ 진행으로 연구, 발표하는 힘이 키워짐
- > 심포지엄 사례연구 참여한 기관들, 현장교육지원전문가들과의 협력장학으로 연구, 발표함

내용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비 고
여는식	10:00-10:10	여는식	사회자	
	10:10-10:20	축사	정병호	
기조강연	10:20-11:10	‘놀이하는 인간 & 놀이 교육학적 해석’	미정	
	11:10-12:00	공동육아 자유놀이 흐름	공동육아어린이집 현장교육지원전문가	공동육아교육과정연구팀
	12:00-13:30	중 식		
사례 발표	13:30-15:30	- 자유놀이에서 교사의 역할과 협력적 교사회의 의미 찾기 - 공동육아 7세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놀이문화 - 도심아파트밀집지역에서의 공동육아 나들이와 자유놀이 - 해외달의 자유놀이 속 교사 협력	어린이집교사회	영유아에서 초등과정까지 아이들의 모습 (각 15분씩 발표)
		- 봉제산 방과후	초등방과후교사회	
		- 강동 꿈나무 아이들의 놀이	지역공동체학교교사회	
		- ‘자유놀이’ 다류상영 - 다류를 찍으면서 생각하게 된 아이들의 자유놀이	다류 10분 상영 부모(1명/10분발표)	
	15:30-16:00	휴 식		
토론	16:00-17:00	토론자 : 교수님 1분, 서울시육·종센터장, 국공립 어린이집 김영명 원장, 산학교		좌장: 이부미

심포 '자유놀이' 연구 지원 계획

- 연구 지원은 각 단위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에서 함께 합니다.
- 전체가 모여서 지원받는 회차는 4회이며, 그 외는 각 현장과 논의하여 정합니다.

■ 전체일정

회차	날짜	시간	내용
1	9월 7일(토)	11:00~13:30	강의-관찰과 기록 주제선정/연구계획
2	9월 ~ 10월	각 터전별 일정	현장지원
3	11월 9일(토)	10:30~13:00	1차 발표안 공유
4	11월 27일(수)	19:00~21:30	1차 PPT 발표자료 공유
5	12월 18일(수)	19:00~21:30	2차 PPT 발표자료 공유
6	12월 31일(화)	자정까지	원고 작성 완료

■ 어린이집 사례발표 주제 선정

- 자연에서의 자유놀이(실외놀이 중심)
- 시공간, 연령 통합에서의 자유놀이
-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유놀이에서 교사역할(실내놀이 중심)
- 마을이 품은 자유놀이
- 신입교사의 공동육아 교육과정 적응기(공동육아와 어린이집 경험 있는 경우 선호)

❖ 교사회대표 박영혜(모자)가 제안 설명.

❖ 20주년 기념 심포에 참가 요청

3) 2019년 보육노동자한마당

- 9월 28일(토) 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부모들의 참여 독려/ 발언자 섭외

❖ 깨끔발어린이집 부모 중에 섭외해 보기로 함.

❖ 보육노동자한마당을 진행하는 동안 성과는/ 보육현실에 대해 보육노동자 당사자들의 연대의미와 참여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 및 외부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보육현안에 맞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조직들의 정치적, 내적성과로도 이어짐. 법인의 경우 당사자들의 연대를 통해 보육현실을 발전시키는 역할.

❖ 정책파트너로서, 보육이슈들을 활성화하고 있음. 최근 2,3년 보육에 관한 목소리, 교사 입장에서의 목소리 등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그동안 공동육아의 경우 교사회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들의 연대로도 주목되던 단위. 매년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어 주고 있음.

4) 64기 현장학교1.기초과정 진행

- 9월 9일(월) 개강. 교사 33명, 그 외 7명 총 40명. 성황리에 진행.
- 입문과정 1명(기초과정 앞 7강좌)

5) 다문화 시민교육 진행 중

2019 서울시 시민재난 평생학습 프로그램

- 포용적 감수성을 높이는 시민교육 '더불어' -

내 안의 다문화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구 저 편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대화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이미 세계시민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바로 옆의 친구, 가족들과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계 200여 개국, 77억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
 그 수만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문화란 무엇일까요?
 인종, 민족,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다문화일까요?
 인종, 민족, 국가가 다른 이들을 포함해
 젠더, 연령, 계층, 종교, 다양한 가족의 형태, 개인의 취향 등
 내 안에 있는 차이를 알아차리고,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내 안의 다문화'를 살펴보고, 좀 더 가까운 '우리'가 되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간!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문화 교육 참여하기

- ◎ 기 간 : 2019년 8월 26일 ~ 9월 30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 ◎ 장 소 : 공동육아 교육관(서울 마포구 동교로 114)
- ◎ 참가비 : 무 료(서울특별시 지원)

일시	주제	강사
1강 8월 26일(월)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 : 다문화 교육의 혼돈과 이해	이부미 (경기대학교 교수)
2강 9월 2일(월)	다문화시대의 인정투쟁 : 다문화주의 교육철학의 이해	이기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3강 9월 16일(월)	우리 곁에 온 고려인 아이들 : 안산 고려인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학교 적응기	김기영 (글로벌다문화연구소 연구원)
4강 9월 23일(월)	마을 안의 세계 : 마을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이숨미 (글로벌다문화연구소 연구원)
5강 9월 30일(월)	한국의 다문화공간 : 문화의 창구, 시대의 접점	정병호 (한양대학교 교수)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의 | 공동육아사무국 류현주(phon) / ☎ 02-323-0520 / gongdong@gongdong.or.kr

6) 2019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사업 재개(구, 공동육아활성화사업)

- 2019 품앗이공동육아 사업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 중
- 서울시가 추경을 구성하여 하반기 2019년 8월 26일부터 2019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 컨설팅 사업이 진행. 기존 지원단체 중심으로 진행키로 함.
- 내년부터는 정상화 예정

1) 경과 보고

- 상반기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2019 육아공동체지원사업 예산이 마련됨
- 8월 초순 서울시 아이돌봄과와의 협의를 거쳐 2019 육아공동체지원사업을 세팅
- 8월 약 1억 5천 예산으로 육아공동체 지원 신청 받아 45개 단체가 신청 완료했고, 9월 10일(화) 2019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심사 예정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약 1500만원(부가세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간지원조직 역할(육아공동체지원 컨설팅사업 담당자)로 선정되었고 담당자 1인 외, 3개월 간 담당 직원 1인 고용

7) 국제희년재단 심포지엄 : “소외와 배제 없는 사회를 향하여 -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 주관 : 국제희년재단연구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준비위원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한국의료사회협연합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인천복지재단(분담금 300만원)

필요성	한국 사회는 급속한 속도로 초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1).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을 시급히 극복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자각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올바른 시각과 방향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양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능한 모델들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목적	유럽의 발전적인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사회 적용 방법 모색을 위한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해 간다.
목표	1. 초 고령화 사회 노인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과 국제적인 협력모델 개발 -지역 사회의 노인 돌봄 시스템 조직화 모델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교육과 훈련) 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사회적 참여를 위한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3. 아동 청소년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모델의 발굴 (전문가 육성 및 활동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 구축) 4. 비영리조직의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치경영과 질적 경영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 전문가 양성 시스템 구축

- 3일간 진행

- 1일차 10월 30일(수) 인천복지재단 총주관으로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계,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노력” : 노인돌봄과 어린이돌봄 2개 섹션 진행/ 공동육아가 어린이돌봄 섹션 운영.

10월 29일(화)		
10시30분 -12시30분	개회사: 인하대 총장 축사: 인천시 시장 인사말: 인천복지재단 유해숙 대표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계, 지방 정부, 시민사회의 노력 -민관협력의 필요성(Prof. Alceste Santuari 볼로냐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민관협력을 위한 볼로냐시의 선택(Rita Ghedini, 전 볼로냐 시 상원위원, 현 LEGACOOP 볼로냐 회장)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제안	
	점심시간	
	- 초 고령화 사회 노인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과 국제적인 협력모델 개발 - 좌장: 이훈재교수(인하대 의과대학 사회의 학교실 교수)	- 어린이돌봄을 위한 가치경영 - 좌장: 정영화(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14시-15시 30분	- 지역 사회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한 NPO 경영: Prof. DD. Markus Gmür,(Fribourg Univ.VMI 연구소 원장) - 인천지역 노인돌봄 현황과 발전 방향:전용호(가천대 교수)	- 어린이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한 민간의 노력,카라박 프로젝트의 경험 : Franca Gugliemetti,(카디아아이 회장) - 한국 육아협동조합의 가치경영시스템과 향후 발전방향 : :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15시30분 -17시	질문과 토론 - Rita Ghedini(전 볼로냐 시 상원위원, 현 LEGACOOP 볼로냐 회장) - Markus Gmür(Fribourg Univ.)	질문과 토론 - Franca Gugliemetti - 이경란

- 2-3일차 10월 31일(목) - 11월 1일(금) 국제심포지엄 진행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및 사회적 참여를 위한 지역협력시스템 구축방안
- 초고령화사회 노인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과 국제적인 협력모델 개발
- 지역사회 돌봄의 질적 발전을 위한 npo경영

- ❖ 카디아아이에서 진행하는 카라박프로젝트(서울시가 모델로 삼았던 프로젝트). 가치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필요한 보육료와 공간을 지자체가 제공하고 각 협동조합들이 연계하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
- ❖ 총 3일 중 1개의 섹션을 법인이 진행하기로 함. 어린이집 돌봄분야 가치경영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됨.

- ❖ 법인의 설립부터 인증, 조합내의 부모와 교사의 협력과 연대 등까지 안정적인 조합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임. 카디아이 경험과 공동육아 경험이 함께 녹아나는 시간이 될 것.
- ❖ 많은 분들의 참여 독려 부탁.

8)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집중토론회 (서울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뉴얼 작업에 컨설팅사업단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중.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사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서울을 키라볼나라
사람으로 만들어나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2019. 9. 20. 금 14:0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개회사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좌 장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인사말씀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발 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축 사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토 론	이승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영상축사	전혜숙 국회의원		이지영 서울 공동산아이 유치원 이사장
	장인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센터장
사 회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권순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주 회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 육아정책연구소

- ❖ 협동조합유치원연구팀에 법인이 참여하고 있음. 컨설팅사업단장이 참석하여 발표할 예정. 협동조합유치원이 생기면서 성과는, 공공기관의 임대를 요청할수 있게 된 것. 유치원공간은 임대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교육공간에만 가능) 협동조합 유치원이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의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됨.
- ❖ 사립유치원 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형을 만들게 된 점 주목됨. 인천지역에서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정책 나오고 있음.

9) 법인 이사 : 12월 초순 이후 예상

■ 논의 안건 (8월 결과 첨부)

3. 공동육아 조직 운영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의

- 8월 중장기워크숍에서 운영위원회의 할 일로서 공동육아 운영시스템의 개선에 관해 검토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운영위원회 중장기 워크숍 “핵심과제 찾기”]

5) SWOT분석

	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점	•	기회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지원 체계 계속 강화 • 조직망을 통한 정부지원, 사업 확대 •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공성 확보 • 출산을 저하에 따른 육아정책 관련 관심과 지원 강화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과 사업 • 정부정책의 변화(현 시류), 저출산/ 보육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사회복지 확산, 재정지원. • 인권, 권리교육에 따른 교육개편 -저변을 마련 • 공동체, 커뮤니티의 친숙함. • 발전방향을 공공적으로 고민 가능함
약점	•	위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의 가치와 철학 희석 • 제도 정책이 행정중심, 관료중심으로 전환 • 정체성과 국가정책의 대립 • 공동육아의 보편화(낮은 이해도로):차별화되지 않은 보육 • 저출산(원아감소) • 개인의 삶 중시, 디지털(4차 산업) 혁명 • 접근성의 어려움. 정책위주 • 환경의 보편적 상향으로 부담. 변혁적이지 않음 • 아이 수 감소 • 정책중심의 우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 공동육아에 대해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음. (vs 발도로프)

성공의 핵심요인

- 시스템- 중간리더, 지속가능한 구조, 전수에 대한 시스템. 안정적인 교사회. 운영면, 간극을 줄이는 프로그램화. 디지털 혁명(변화에 맞춘 교육내용의 강화) -> 내부적 강화 방안
- 공동체- 다양한 구성원, 동지들과의 연대와 협력-> 가치적 문제
- 정부정책의 변화- 공동육아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며 갈 것인가. 자기독자성 강화의 방안,
- 연구소 강화-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발전, 확장

- ▶ 정부정책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공동육아를 보편적 모델로 확산한다
- ▶ 공동육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도약한다.(편의성, 지속성, 수월한 공동육아 시스템으로 도약.)
- ▶ 공동육아의 연구기반을 확대하여 연구와 실천의 순환구조를 확립한다.
- ▶ 공동육아의 공동체 문화와 역사를 잘 알려나간다.

- 별첨 “2019 공동육아 운영시스템”(피노키오)